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1월 1일(주일) 제1072호



러브소나타 오이타 현장.

2015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독교는 저주가 아니라 진짜 희망

2,437명 참석 ... 101명 “예수 믿겠다”, 398명 긍정적 응답
기독교 인구 적고, 박해 역사로 반감 심한 곳에서 열매 맺어

일본 기독교 부흥의 진원지 오이타에서 23번째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졌다.

지난 29일, 오이타 이치코그란시어터 행사장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에는 2,437명이 참석했다. 일본인 참가자가 1,995명이나 됐다. 열매 또한 풍성했다. 일본인 101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응답했다. 결신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와 성경 메시지에 마음이 끌린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도 398명이 나왔다.

지난 4월 열린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

가 101명, 예수와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가 215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행사 규모도, 교회 수도 교토보다 적은 오이타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혔는지를 잘 알 수 있다.

28일에는 가족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29일에는 CEO포럼과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졌다. 28일 홀트홀에서 열린 가족세미나에서 박종길 목사는 그리스도가 꿈꾸는 교회를, 김하중 장로는 축복의 통로를, 이기복 교수는 가정과 자녀양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같은 날 저녁 이치코

오토노이즈미홀에서는 가스펠나이트가 열렸다. 오이타 지역 교회 어린이들로 구성된 ‘연합키즈콰이어’, 프로 가스펠콰이어팀 ‘New Wings’, NHK(일본국영방송) 아침 드라마 주제곡을 부른 가수 ‘혼다 루츠코’, 오이타 교계 ‘연합콰이어팀’, 가요 연주자 이슬기 자매가 출연했다.

29일 오후에는 오아시스호텔에서 한일 리더십 만찬 CEO포럼이 개최됐다. 한국과 일본 정재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우호를 다졌다. 사토 기이치로 오이타 시장을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국회의원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한일교류의 장에 참석했다. CEO포럼에 참석한 일본인 리더십들의 90%가 비신자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저녁 7시에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막 올랐다. 장로합창단의 축복송으로 문을 연 러브소나타 집회는 박진아 작가의 샌드애니메이션 영상, 가수 심수봉의 공연, 송술나무의 플루트 연주, 이슬기 가요 연주, 김영미 권사의 찬양, 테너 배재철의 간증과 찬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내일의 희망’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한국에서 오이타까지 희망을 선물하려고 왔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희망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행사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행사시작 직전까지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약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오이타는 그동안 일본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집회 가운데 가장 기독교 인구가 적은 곳이다. 현내에 교회가 67개 밖에 없다. 그나마도 성도가 15~30명 안팎이다.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가슴 아픈 역사의 영향으로 반감 또한 심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성황리에 러브소나타 집회를 마친 것 자체가 기적이다. 기독교는 저주가 아니라 진짜 희망이라는 것을 알려 준 뜻 깊은 행사였다.

〈관련기사 4, 5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특집_ 나는 이렇게 예수바보행전을 쓰겠다 2면 인물_ 만나고 싶었습니다_ 장정윤 자매 6면 대학청년_ 청년들이 쓰고 있는 예수바보행전 8면

나는 이렇게 예수바보행전을 쓰겠다

1. 목회자 2. 선교사 3. 성도



〈성인〉

고은정 권사
(서초A공동체)

“온누리교회에는 참 바보들이 많더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꾸벅, 청년들도 꾸벅, 어른들도 꾸벅, 노인들도 꾸벅, 교역자도 꾸벅... 집사, 장로, 권사의 직업이 있기는 한 건가? 주일이면 수만 명이 드나들고 일주일 내내 아래 위층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교회가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온누리교회는 예수만 바라보는 바보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다. 겨울비에 바람까지 불어 길 바닥이 온통 얼음판 같은 새벽녘 택시에서 내려 우산을 펼치며 끄

꿍대며 내렸다.

“아버지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제단을 쌓고 있습니다”라며 남 좋은 일 하듯 속으로 생색을 내고 있었다. 그동안 새벽마다 집 앞까지 데리러 오는 후배의 따스한 승용차에 올라 편히 다녔던 터라 더욱 끄꿍했다. 교회 앞마당에 들어서는데 바로 코앞에서 기다란 우비를 걸치고, 양 손으로 워커(보행 보조기구)를 밀며 절름절름 걷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고~ 아버지!” 하며 비명이 입 밖으로 나올 뻔 했다.

후드득거리는 비를 조금이라도 피할 셈으로 서점이 있는 1층 현관에 들어서서 안쪽의 계단을 올랐다. 바로 앞에 꼬부라진 할머니가 계단의 난간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계단을 오르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한 참씩 멈추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차마 앞지를 수는 없고, 기

다리려니 한이 없고... 내게 힘이 있으면 번쩍 들어 업거나 부축을 하련만. 나 혼자도 계단 오르는 일이 버거우니 어찌란 말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 지나친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나처럼 핑계가 있었겠지”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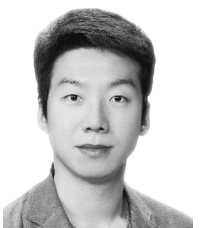
지구 곳곳에는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 땀 한 조각 물 한 모금 없어 허덕이는 어른 아이가 부지기수로 많다. 몇 십 년이나 내전을 겪으며 팔, 다리 잘리고 인명이 파괴 목숨보다 못한 나라들이 있다. 이들을 바로 보살피겠다고 기쁘게 바보가 되는 온누리교회 식구 역시 적지 않다. 그 대열에 나서기에는 이미 세월을 한참 잃었다. 그렇다고 “아버지 저는 먹고, 자고, 싸는 일 외에 흠으로 돌아갈 일 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겠을까?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한 권사님이 어느 날

맛있는 파배기를 만들어 백 명 가까운 어른들께 대접을 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한데 밀가루를 빚는 모양이다. 파배기를 밤새 튀겨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는 채로 가져와 여러 노인들의 입을 즐겁게 해줬다. 온누리신문 기사에서 전쟁 중 한 소녀가 목사님께 받은 돈 3만환을 파배기 하나 사먹지 않고 책을 샀다는 내용에 마음이 찢혀서 손수 파배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먹을 것이 얼마나 흔한 오늘날인가.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되지 않는 파배기를 밤새워만 드신 권사님은 바보 아닌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 바보가 되기를 자청하고,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바보 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많다. 너와 나 사이에서 바보 되기를 한 번씩만 결단한다면 온누리교회는 참 바보들의 행전을 이어가는 진원지가 되리라 믿는다.

시간을 쪼개 삶을 드리는 ‘예수바보행전’



〈청년〉

김민규 형제
(요셉공동체)

요셉공동체는 매주 ODO(One Day Outreach)를 간다. 나는 ‘라파의 집’을 섬기고 있다. 이곳은 남성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그들과 매주 주일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나눔도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특식을 준비해 간다. 최근에는 이들과 함께 이태원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에도 방문하고, 남산도 올랐다.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웃을 만지고, 친근함을 표시하는 행동에 적응이 당황했다. 그들을

섬기는 모습도 부자연스러웠다. 돕는 손길이 부족해 라파의 집을 혼자 방문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붙여 주셨다. 남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 저 혼자 가기에는 벅찬데요. 누군가 도와줬으면 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자진해서 오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라파의 집 식구들은 잘 웃지 않는다. 대부분 무표정이거나, 화가 난 표정을 지을 때가 있다. 그들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드물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갔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여니 그들도 웃었다. 요셉공동체는 주일에 다른 교회를 섬기

는 일에 매우 익숙하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외부에 나가 섬긴다. 지역 교회, 장애인 시설, 병원, 주일학교 교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드린다. 토요일, 주일에 교회에서 사는 형제자매들도 많다. 직장생활을 하며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수바보행전이 아닐까.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표어처럼 어떠한 장소, 시간이라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공동체다. 마음에 드는 곳,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을 내가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섬기기 싫어하는 곳,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바로 예수바보행전을

위한 행동규칙이 아닐까 싶다. 내가 간 라파의 집도 처음에는 낯선 곳, 더 낯선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다.

“너도 내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주님과 함께 쓰는 예수바보행전이 사랑의 의미로 다가왔다. 라파의 집 섬김 팀장을 맡으면서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다. 사업을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다.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섬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를 놀리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바보



〈차세대〉

김여은 학생
(서빙고 고등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터키로 단기선교를 갔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던 내 신앙이 하나님을 만난 후 달라졌다. 확신이 생겼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라”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 학교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혼자였다.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고, 나조차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신실한 크리스천 친구가 동역자가 되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왔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다. 예배 장소가 없어서 운동장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적도 있다. 한 번은 지나가던 학생이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SNS에 찍어 올린 적도 있다.

“우리 학교에 미친 학생이 나타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함께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또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 날부터 학교에서 ‘학생 목사, 사이코’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왕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하나

님이 말씀하셨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벧전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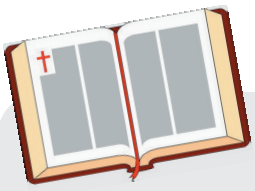
세상은 미련하다고 보았고, 조롱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믿는다. 지난 10월 4일, 온누리교회 창립30주년 주일에 이재훈 목사님이 고등부에 직접 찾아와 ‘예수바보행전’이라는 설교를 해주셨다. 정말 감동이었다. 그리고 감사했다. 메시지를 들을 때 하늘

의 위로와 기쁨이 내 안에 넘쳤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바보가 되라!”

이 말은 그냥 들으면 이해되지 않지만 엄청난 믿음의 선포로 다가왔다. 식었던 내 마음에 세상에서의 바보, 예수님 밖에 모르는 바보,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바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학교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보가 될 것이다. 이제 고3이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졸업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예배하며, 나를 놀리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멈출 수 없는 힘

사도행전 4:7~21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운동력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들입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시대가 악해서 교회가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환경이 나빠져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해서 교회가 뒤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화의 선도자였고, 창조자였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동력, 멈출 수 없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가 성령님의 역사로 형성된 것일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자체를 보존하려는 사람은 문화의 수치스런 죽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문화 속에 교회가 함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씨는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환경이 아니라 교회가 운동력을 상실해서 종교기관화 되거나 종교문화화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종교로 구분되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종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다.

종교화된 교회와 본래의 기독교

종교화된 교회의 모습과 본래의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교화된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십니다. 둘째, 종교화된 교회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종교화된 교회는 구조화되고, 형식에 얽매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교회는 힘이 넘치고 자유롭습니다. 넷째, 종교화된 교회는 교회만을 중요시하며 인간을 높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기독교는 교회만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은 당시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은 율법의 테두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으로 만들

어진 문화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이 만들어낸 문화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1,500년 이상 그들의 체계를 유지해 왔던 종교체계를 뒤흔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얼마나 선한 탈을 쓰고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는 힘의 대결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정치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의 대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패배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

오늘 본문은 3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견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성전 경비대장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산헤드린 재판에 넘겼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아니라 진리를 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다시 뭉쳤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 사람을 가두고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 재판입니까. 이것은 복음증거에 대한 최초의 박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역사를 행한 이들을 악한 이들이 세상의 힘으로 억누르고 하는 최초의 박해입니다. 복음증거에 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증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는 당시 막강한 권력의 힘으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멈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이 시대에 조금 변성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성경은 오류일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교회가 쇠퇴하면 또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고, 한 나라에서 교회가

쇠퇴하면 또 다른 대륙에서 복음이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복음이 쇠퇴할 때 북미대륙에서 교회가 일어났고, 북미대륙에서 교회가 쇠퇴할 때 아시아에서 교회가 일어났고, 아시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쇠퇴할 때 남반구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불길은 세상의 문화로 끌 수 없고, 세상의 권력으로 끌 수 없고, 박해와 핍박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뒤흔들 수 없다

왜 사도들의 증거가 멈출 수 없었습니까.

첫째, 거짓은 진실을 가뒤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증거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내용에 놀란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전관리자의 허락 없이 모여들었다는 이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교육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니까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행 4:2).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18절).

그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8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거짓된 위선이 예수님에 의해서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리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해서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과 위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먼저 읽고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을 예수님이 올바르게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구약을 읽어보면 차이점이 없습니다.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해석한 탈무드나 율법 해석서를 보면 전혀 새로운 책입니다. 예수님이 1,500년 동안 그들이 해석해서 내려온 것들이 잘못되었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말하니까 죽인 것입니다. 진실만을 억누

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체계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위치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진실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실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을 시킨 것입니다.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던 것에 놀라지 않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보고 놀랐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걸어난 일인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에 놀랐습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면 진짜 중요한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심문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심문합니다. 그들의 옹졸하고, 편협하고, 완악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진실을 막으면 막을수록 더 확산됩니다.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남자만 오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둘째, 그들의 증거가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사도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9-20절).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권력자들이 경고와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3면에 계속)

르포_ 순교의 피 흐르는 오이타를 가다

저주의 땅에서 희망을 목도하다

다시 한 번 부흥을 노래 ... 그 중심에 러브소나타가 있다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린 지난 27일, 일본 오이타에 도착했다. 23번째 러브소나타 집회가 규슈에 위치한 한적한 온천마을 오이타에서 열린다. 날씨 때문인지 내 마음도 왠지 모르게 추웠다. 아마도 오이타가 기독교 박해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한 것 같다. 오이타는 기독교 탄압으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다. 사람들 머릿속에 기독교는 곧 저주라고 각인되어 있다. 역대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 곳 중에서 교회가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하다.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목도했다. 러브소나타를 섬기러 한국에서 온 524명의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때 일본 기독교 부흥의 진원지였던,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오이타 기독교 역사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소린은 이때부터 기독교와 외국인 선교사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토지를 주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 외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소린의 기독교 우호적인 치세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우선 일본에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에 의해 종합병원이 세워졌고, 일본 최초로 외과 수술이 행해졌다. 당시는 먹을 것이 부족하던 때라 많은 아가들이 버려지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고아원을 세워 버려진 아이들을 키웠다. 그것이 일본 최초의 고아원이다. 당시 오이타는 복지와 구제, 봉사의 발양지였다.

소린은 미션스쿨(신학교), 수도원, 도서관도 세웠다. 포르투갈 선교사와 무역선의 출입을 적극 옹호해 일본에 난반 문화(포르투갈 혹은 서

양 중세 문화를 일컫는 일본어)를 꽃피웠다. 오이타는 일본의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 당시 서양에서는 분고를 일본과 별개의 나라로 인식했고, 이곳을 ‘동양의 로마’라고 부를 정도였다. 오이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라틴어로 된 성가가 불려지기도 했다. 성곡이 처음 행해진 곳도 바로 오이타다.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자에 대한 솔로몬의 재판을 다룬 성곡이 행해졌다.

외국 문물의 유입에도 적극적이었다. 단호박과 찻소를 처음으로 수입해 키운 것도 소린이었고, 대포와 철포도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왔다. 소린의 비호 아래 오이타 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가장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었다. 1587년 소린이 소천할 당시 일본 전체 크리스천이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오이타

지역에만 크리스천 인구가 5만 명 이상이었다. 일본 전체 크리스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이처럼 오이타는 일본 기독교 부흥의 발양지였다. 오이타를 제외하고는 일본 기독교 역사를 논할 수 없다.

석공들이 우스키성 돌에 새긴 십자가

1563년 소린이 우스키 지역에 성을 축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성을 만들 때 사용한 돌을 다루는 석공들이 모두 크리스천이었다고 한다. 석공들은 돌에 십자가와 △(성모), ○(하나님), H(예수회를 의미하는 IHS의 H) 등을 새겨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냈다.

직접 우스키성에 가 보았다. 걸어서 보기에 일본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곽이었다. 당시 석공들이 새겨놓은 표식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우스키그리스도교회 마츠나가 목사가 안내해 주지 않았다더라면 끝까지 찾지 못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의 흐름에 흔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잡초와 이끼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석공들이 새겨놓은 표식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졌다. 돌에 문양을 새김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름 없는 석공들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기독교 부흥지에서 처참한 박해 현장으로 크리스천 20~30만 명이 순교 당하다

번영할 것만 같던 오이타의 기독교는 소린 영주가 소천한 1587년 이후 급변했다. 소린은 자신이 죽은 후 오이타가 기독교 박해의 현장이 되리라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테렌(선교사란 뜻) 추방령’을 내렸다. 전진 외국 문물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도쿠가와 막부 때 정점을 찍었다. 1614년 전국에 ‘기리시탄(크리스천의 일본한자식 발음) 금지령’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크리스천 박해가 시작됐다. 당시 일본에 약 6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그중 20~30만 명이 이때 순

교를 당했다. 엄청난 숫자다. 기독교가 번성했던 오이타는 역설적으로 가장 극심한 박해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오이타 시내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떨어진 곳에 ‘기리시탄 순교기념공원’이 있다. 이곳에서 14세 소녀부터 84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목이 잘려 처형당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제대로 된 무덤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 처참하게 버려졌다. 크리스천들이 이곳에서 처형당한 이후 이곳은 저주받은 곳이 됐다. 불길한 땅이 되어 버렸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그곳을 1960년 당시 오이타 시장 우에다 다모츠(크리스천)가 공원으로 조성해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순교기념비를 세웠다.

순교기념공원에도 가보았다. 공원 맞은편에 ‘성예수회영광찬미교회’가 있다. 순교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오이타로 온 시노 미츠코 목사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순교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곳을 방문해 기도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오이타 땅에 다시 한 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뜨겁게 기도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 당일. 이틀 전 온 비로 스산했던 공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화창해졌다. 따뜻한 날씨로 바뀌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오이타를 축복하기 위해 한국에서 달려온 524명의 표정이 화창한 날씨보다 더 밝았다.

러브소나타가 열린 그란시어터 행사장은 그야말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아침부터 이어진 중보기도가 한 몫했다. 중보기도팀은 오전 10시부터 집회가 끝나는 9시까지 릴레이 중보기도로 힘을 보탰다. 뜨거운 중보기도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오이타 성도들의 열망이 더해져 101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역대 러브소나타가 개최된 곳 중에서 교계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던 곳에서 이룬 쾌거다.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기독교의 부흥을 노래했다. 그 중심에 러브소나타가 있었다.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된 것은 1549년 8월 15일이다. 로마 가톨릭 예수회 소속 신부 프란치스코 자비에르 선교사가 일본에 기독교를 전했다. 가고시마에 상륙한 자비에르 신부는 2년 뒤 1551년 9월 중순 ‘분고’(오이타현의 옛지명)에 들어왔다.

오토모 소린 영주와 기독교

당시 오이타는 ‘오토모 소린’이라는 21세의 젊은 영주가 다스리고 있었다. 외국 문물과 기독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던 소린이 자비에르를 초청했다. 자비에르는 오이타에 불과 2개월을 머물다 인도로 떠났다. 그가 일본에서 보낸 2개월 동안 젊은 영주 소린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오이타 기리시탄 순교기념공원.

오이타에서 만난 사람들

순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시노 미츠코 목사
(성예수회영광찬미교회)

성예수회영광찬미교회는 순교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아담한 교회다. 이 교회는 시노 미츠코 목사가 1987년에 세운 교회다. 그녀는 1985년 처음 오이타에 왔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오이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다. ‘순교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시노 목사는 교토에서 태어났다. 대학과 신학교까지 모두 교토에서 나왔다. 그야말로 교토 토박이다. 그녀가 아는 사람도, 성도도 없는 오이타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만 해도 교회 근처가 산이었다. 황

량한 밭과 쓰레기장뿐이었다. 뱀이 많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더구나 이곳 일대는 기독교 박해 당시, 기리시탄들의 목을 잘라 처형하던 처형장이었다. 처형당한 크리스천이 귀신이 되어 떠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 황량한 곳에서 시노 목사는 1987년 목사관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다. 일대 땅을 개간하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노 목사는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흥흥한 소문이 돌고, 저주받은

곳이라고 모두들 기피하던 곳에 1993년 9월 지금의 교회당을 세웠다.

시노 목사는 교회를 만들 때 순교지의 흙과 돌, 나무 등을 모아와 제단을 쌓았다. 순교당한 크리스천들을 매장한 절에서 흙을 퍼왔다. 예루살렘에도 가서 기념될만한 것들을 공수해왔다. 나사로 무덤가나 예언자 스가라의 무덤가 주변 흙도 가져와 제단 밑에 묻었다. 늘 순교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지금의 영광찬미교회가 세워졌다. 순교자의, 순교자를 위한, 순교자에 의한 교회를 세웠다.

“영광찬미교회뿐만 아니라 순교의 피가 흐르는 오이타의 교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열정을 닮은 교회들입니다.”

오이타의 67번째 교회이야기

나가이와 히로미 목사
(오이타이즈미교회)

오이타현에는 67개의 교회가 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한 1년 6개월 전에는 교회가 66개였다. 나가이와 목사가 시무하는 오이타이즈미교회는 러브소나타 준비와 함께 주변 교회로부터 정식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다. 나가이와 목사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호소카와 가라사 부인〉을 읽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당시 나가이와 목사는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어둡고 힘든 인생살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는 책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뒤늦게 신앙에 불이 붙은 그녀는 성경 읽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즐거웠다. 무엇보다 전도하는 기쁨이 컸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넘쳐났다. 3명으로 시작한 성경공부가 어느새 40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전도하는 즐거움에 빠진 그녀는 8년 전 신학교에 입학했다. 들어간 신학교에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6년 전 목사가 되었다. 그녀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이가 바로 남편이다. 그녀는 자녀들과 시부모, 친정부

모, 친척들, 친구들까지 전도에 성공했을 정도로 전도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쉽지 않았다. 그런 남편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세례받은 성도가 됐다.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소천했다. 하나님이 그녀의 손을 통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나가이와 목사는 일본 기독교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고 한다. 교단과 교파의 벽이 너무 높아 교류는커녕, 정식 교회로 인정해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러브소나타 집회를 준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준비하면서 주변 교회들과 교류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나가이와 목사는 “러브소나타를 통해 오이타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영성 고향에 전수하다

이노우에 마키 목사
(사이키복음그리스도교회)

오이타에서 낮이 익은 반가운 이를 만났다. 주인공은 이노우에 마키 목사다. 그는 햇수로 11년 가까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다. 선교사 훈련과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노우에 목사가 처음 온누리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4년이다.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열심히 섬겼다. 2006년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한국으로 온 목적은 단 하나였다.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였다. 1년 정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하러 나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선교하러가기까지 무

려 5년 반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선교사 훈련뿐만 아니라 신대원에도 진학해 목사 안수도 받았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를 섬겼다. 2011년 12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북경 온누리교회로 파송되었다.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섬기게 되었다. 북경에서 3년 동안 있었다. 힘들긴 했어도 평소 꿈이자 비전이었던 선교사가 되었기에 행복했다. 하지만 어렵게도 비자 문제로 2014년 12월 일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자신의 고향이자, 아버지의 교회가 있는 오이타에서 사역하고 있다. 오이타에서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발 벗고 나서서 도왔다. 온누리교회를 잘 알고, 한국어도 가능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오이타 실행위원회와 한국 온누리교회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노우에 목사는 아직도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 이유가 있어서 자신을 오이타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을 어딘가로 보내실 때까지, 그는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싶다고 했다. 겸손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예배가 나를 살렸어요”

백혈병 진단 받고도 반주자 자리 지킨 장정윤 자매

요셉공동체에 가면 짧은 머리를 한 예쁜 자매가 반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이름은 장정윤이다. 요셉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녀에 대해 물으면 한결같이 “요셉공동체의 살아있는 예배자”라고 소개한다. 장정윤 자매는 11년 동안 요셉공동체를 섬겼다. 그동안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과 기도, 후원이 그녀를 요셉공동체의 살아있는 예배자로 세웠다. 그녀의 삶에 큰 위기가 있었다. 스물다섯 살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투병 중에도 요셉공동체 반주자의 자리를 지켰다. 숨은 진주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토요일에는 요셉공동체 예배팀 팀장으로, 주일에는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 반주자로, 평일에는 청소년 밴드부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녀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를 들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그녀에게는 몹시 아픈 날로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안 곳곳에 경매 딱지가 붙었다.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생활은 고되고 팍팍했다. 고추장에 밥만 비벼먹던 시절을 보냈다. 다섯 가족이 방 한 칸에 웅기종기 모여 눈물 흘리기도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은 교회 목사다. 그녀는 엄마에게 아웃리치를 가고 싶다며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 전액 후원을 받아 아웃리치를 갈 수 있었다. 가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아웃리치에서도 통증이 있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다. 아웃리치에서 돌아오자마자 병원을 찾았는데 MRI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병원비가 없어 MRI 검사를 받지 않고 한의원으로 향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잇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치과 치료비도 부담이었다. 진료비 6만원이 없어 친구가 대신 진료비를 냈다. 그 날 저녁, 고열에 시달렸다. 온 몸에 큰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찾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 제발 돈 안 드는 병이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아프면 안돼요.”

초밥과 회 그리고 흰 봉투

그녀에게 10월 7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다급히 찾은 병원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사주겠다고 말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앞으로 벌어진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회와 초밥이 먹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해 질 무렵 검사결과가 나왔다. 비참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당장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근처 미용실에 갔다.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녀가 찾은 곳은 투명한 커튼이 쳐진 무균실이었다. 그곳은 차가웠다. 4인실 침대에서 홀로 지내야 했다. 무균실은 보호자 출입도 금지된 곳이다. 무균실 입원 첫 날 엄마가 간호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해 함께 보낼 수 있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투병 중에도 밝았다. 그녀가 해맑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공동체 지체들의 사랑 때문이었다. 10월 7일 입원한 이후 요셉공동체 지체들이 끊임없이 방문안을 왔다. 방문안은 인원이 무려 400여 명이나 됐다. 그들의 문병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한 팀이 오면 다른 한 팀이 대기했고, 또 다른 팀은 뒤에서 기도를 했다. 백지장 같이 하얀 얼굴에 부르튼 입술을 본 공동체 한 형제가 장정윤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정윤 자매 가정에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때 저 멀리서 엄마의 아멘소리가 들렸다. 방문안 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던 할머니에 엄마의 손에 흰 봉투가 쥐어졌다. 봉투를 주고 간 형제는 꼭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흰 봉투에는 200만원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야”



병원에 찾아와 준 온누리교회 지체들.

백혈병이 완치되기까지

항암치료가 시작됐다. 1차 항암치료는 40일 동안의 고통을 의미했다. 가난과 백혈병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가정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요셉공동체는 그녀가 투병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치료비를 모금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공동체 멘토들과 협의체 청년들이 매일 찾아와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요셉공동체를 담당했던 교역자는 통답이며, 쌀을 짊어지고 그녀의 집을 심방했다. 또한 그녀의 혈액형은 AB형이었다. 그녀가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요셉공동체 혈액형 AB형인 형제들이 달려와 수혈을 도왔다.

2차 항암치료 중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골수 공여자를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골수이식 공여자를 3명이나 찾았다. 건강하고 젊은 남성 공여자에게 골수를 이식 받기로 했다. 의사는 하루 정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그녀의 가족이 여행을 떠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공여자가 골수이식을 포기했다는 소식이었다.

또다시 슬픔이 찾아왔다. 골수이식을 받지 못하면 또 한 차례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끝없는 육체적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점막이 헐어 빨간 소독약으로 입 안을 때면 소독했다. 물을 마시고 토하기를 반복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다.

의사가 그녀에게 또 다른 치료법을 제안했다. 자가 골수이식이었다. 타인의 골수 이식은 부작용이 많지만 재발율이 없고, 자가이식은 부작용이 없지만 재발율이 50%나 됐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다. 결국 자가 골수이식을 받기로 했다. 골수이식은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고통이 뒤따랐다.

자가 골수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새 삶을 찾았다. 감사가 넘치는 제2의 인생이 활짝 열렸다. 1년 넘게 투병생활 하면서 성격도 바뀌었다. 소심하고, 어둡던 그녀가 밝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다. 짧은 헤어스타일로 익숙해졌다. 모자를 벗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회복했다.

그녀는 투병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기적을 경험했다. 한번은 타인의 골수이식을 받으려면 조혈모세포 협회에 8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당시 요셉공동체를 담당하던 교역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은 외국에 가기 전에 봉투를 건네셨다. 요셉공동체 멘토님이 헌금을 하신 것이었다. 그 봉투에는 1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퇴원할 무렵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병원비를 찾아가라는 연락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한 요셉공동체 청년이 그녀의 병원비를 계산하고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는 숨은 천사들을 통해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2011년 5월, 그녀는 병동에서 유일하게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되었다. 지난 11년 동안 한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녀에게 일어난 기적이었다. 그녀는 지금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고 있다.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물었다. 힘차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예배가 나를 살렸어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논하다

1.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2. 일대일 제자양육의 미래

온누리교회 양육의 기둥은 큐티와 일대일이다. 12가정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1986년 9월 28일부터 시작한 주일 성경공부에도 큐티와 일대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일대일 제자양육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영적 지도자로 성장시켰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신앙과 삶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성장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있다.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양육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유익을 정리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3만 3천여 명 동반자 과정, 2만여 명 양육자 과정 수료
11월 7일 ‘일대일 제자양육 30 페스티벌’ 개최



맑은샘교회 일대일 1기 수료식

온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강조했다. 일대일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단순히 성경과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 영적인 유산을 나누는 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정의했다.

故하용조 목사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대일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약 6개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경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발견과 사역, 선교, 비전 등이 형성됩니다.”

故 하용조 목사의 말처럼 온누리교회는 일

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6년 일대일 지도자반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3만 3천여 명이 동반자 과정을, 2만여 명이 양육자 과정을 수료했다.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일대일

그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은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으로 뻗어나갔다. 온누리교회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세상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일대일 대외사역’이 있다. 일대일 대외사역은 1997년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일대일을 소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대일 대외사역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있다. 벌써 300개 이상의 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 방법을 전수했다. 300명 미만의 교회, 미자립교회가 주 대상이다.

선교지에도 활발하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가 각국 언어로 번역 되어있다. 2000선교본부에서도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접목하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또 하나의 선교방법이 되고 있다. 선교와 일대일 제자양육이 만나 융합선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외국에 일대일사역자 학교’도 있다. 일대일 위원회에서는 ‘일대일로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외국인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언어의 한계가 있었다.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2014년 9월 마침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대일 사역자 학교가 개강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 다른 언어권에서도 일대일 사역자 학교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일대일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일대일제자양육 30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일대일 제자양육 30년 역사를 돌아보고, 일대일 제자양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다. 협력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해서 점검도 할 예정이다.

간증



/ 권순옥 권사(고양은평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처음 할 때가 기억난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지만 무지했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나를 애정으로 대하고, 참고 기다려준 양육자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일대일로 만나 전달하는 자리다. 내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때를 돌이켜보면 서로 만나 인사하고, 함께 손 모아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지난주의 삶을 나누고, 그 주 과제를 했다.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 써오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오고, 말씀을 암기해야 했다. 주일예배 설교 요점 정리도 해야

했다. 사실 그 많은 숙제를 간신히 했다.

나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 양육자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할 말이 더 많았다. 그런 나를 진정시키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미소 짓던 양육자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양육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지나고 보니 이렇게 깊이 이해받고, 인정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매주 일대일 제자양육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 삶이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가슴이 벅찼다. 그렇게 열일곱 번의 만남이 끝나고 동반자반을 수료했다. 시간이 흘러 양육자

반을 수료 하고 일대일 양육자가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제법 많은 성경지식과 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도가 되었다.

나와 연결된 동반자는 내게 기쁨과 설렘을 선물했다.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등록교인 절차를 밟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녀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만나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과 일정, 그리고 준비해올 것 등을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뛰었다. 절절한 마음과 열정적인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며 나누는 중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 침묵하며 기도한 적도 여러 번이다.

내가 양육한 성도는 내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며 체계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재점검한 것 같다고 했다. 우리의 만남을 감사해했다. QT와 기도제목을 나누다 보니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태도가 말씀을 통해 재해석 되었다고 했다. 하나님을 나누면 열 개를 적용하는 동반자는 확장시절 일등을 놓치지 않았던 재원

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서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뒤늦게 나를 양육해 준 양육자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를 위해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들어주려하며 일대일 제자양육을 준비하니 같은 말이 새롭게 다가왔다. 오히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었다. 동반자도 신앙생활이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새롭다고 했다. 그 덕분에 형제들과 친구들을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만남을 통해 나도 새로워졌고, 내 믿음도 깊어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 과거 개울물처럼 소리 내며 재잘거리던 시절과 작별하고 푸르고 깊은 호수와 같은 방향으로 내 물줄기를 돌려 세웠다. 깊고 아름다운 푸른색, 그 오묘한 빛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나를 돌아본다.

청년들이 쓰고 있는 ‘예수바보행전’

갈렘공동체 창신동 쪽방촌 섬김과 J4U공동체 새터민 섬김

갈렘공동체 청년들이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했다. 갈렘공동체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곳을 찾아와 섬기고 있다. 벌써 12년째다. 그들이 쪽방촌을 섬기는 이유는 단순하다. 남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을 섬기는 것이 예수바보행전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찾아가 섬기는 청년들이 또 있다. 주인공은 J4U공동체 새터민사역팀이다. 그들은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일대일로 과외를 해주고, 진로상담도 해주고 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청년들과 동행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창신동 쪽방촌에 장판을 깔기 위해 찾아가는 갈렘공동체 청년들.

포근한 수면바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 달 창신동 쪽방촌 어르신들께 선물하면 제격이겠다 싶다. 갈렘공동체 청년들은 쪽방촌 어른들께 매월 만원의 행복을 선물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수면바지와 케이크로 만원의 행복을 선물할 요량이다. 창신동 쪽방촌을 섬길 준비를 마친 청년들의 두 손에 선물꾸러미가 가득하다.

갈렘공동체 청년들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섬기고 있다. 갈렘공동체 청년들은 창신동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친한 친구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겠노라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쪽방촌, 말이 쪽방이지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0.5평에서 1평 정도밖에 안 되는 비좁고 남루하기 짝이 없다. 창문도 없고, 출입문은 빼적거린다. 그 좁은 곳에서 밥을 해 먹고, 옷이며 신발, 먹을거리, 부엌살림까지 보관하고 있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전국에 쪽방촌이 11곳 있다. 서울에만 다섯 군데가 있다. 창신동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330명 정도다. 실제로는 더 많은 숫자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누우면 발과 머리가 벽에 붙을 것 같은 곳에서 월세 10~20만원을 내고 살고 있다. 보증금이 없어진 이후에 방값이 올랐다.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세로 3,000~7,000원을 내고 있다.

쪽방촌에서 만난 사람들은 삶이 고되고 팍팍해도 따뜻했다. 온기가 느껴졌다. 갈렘공동체 청년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주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

른다. 작은 섬김에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차디찬 시선이 그들을 외롭게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자주 보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하지 못하는 속 이야기를 갈렘공동체 청년들에게 꺼내놓기도 한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사를 듣고 있으면 한편의 영화 같다.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야기들도 있다.

쪽방촌을 찾아가 섬겨야 하는 이유

쪽방촌을 섬기고 있는 갈렘공동체 청년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몇 년째 쪽방촌을 섬기고 있는 박소현 자매는 “쪽방촌을 섬기는 팀원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가라도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있다고 했다. 그녀가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창신동 쪽방촌에서 갈렘공동체 청년들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한 할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더 외롭지 않게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1년 반째 쪽방촌을 섬기고 있는 백현욱 형제도 한마디 거들었다.

“섬기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쪽방촌을 방문할 때마다 오히려 온기를 느끼고 온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했다.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숙인이나 생활이 매우 어렵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면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질 텐데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새터민 섬기는 J4U공동체 ‘우리섬사역팀’

1995년을 전후로 북한을 탈출한 난민 수가 약 30만 명이다. 그들 중에서 남한에 입국한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 또는 ‘새터민’이나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현재 한국에 와있는 새터민은 2만 6천 명 정도다. 그들 중에서 10대가 3천 명에 이른다.

대부분의 새터민 청소년들은 북한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북한을 탈출한 이후에도 제3국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기초 학력 부진문제가 심각하다. 남한 청소년의 학력 평균이 80점이라면, 탈북 청소년들은 60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치열한 경쟁구조 사회인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J4U공동체 청년들이 ‘우리섬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모았다.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기초적인 영어와 수학, 국어 등을 가르쳐주면서 기초 교육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복음도 전하면서 말이다.

J4U공동체가 지난 2012년 태안 아웃리치에서 만난 탈북 청소년들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탈북 청소년 이철희(가명)형제는 “J4U공동체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 J4U공동체 덕분에 돌봐주고 섬겨주는 집사님도 만났다”고 했다.

학업 돕고, 진로상담에, 복음통일 주역 양육까지

J4U공동체는 새터민 청소년들과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나 학교 근처로 찾아간다. 탈북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다. 그들의 학업도 돕고, 상담도 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섬사역이 새터민 청소년들의 기초학습 능력을 키우고, 그들의 진로상담을 해주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을 대비해 사역자로 양육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1년 이상 새터민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J4U공동체 문호찬 형제는 “탈북 청소년들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들고 북한에서 선교사의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와서 경험한 것 중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원봉사다. 그들은 처음에 아무 대가 없이 찾아와 공부를 알려주고, 진로상담을 해주는 J4U공동체의 우리섬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달라졌다. J4U공동체 우리섬사역팀이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

J4U공동체와 만난 한 새터민 형제는 현재 한성대학교에 입학해 C.C.C활동을 하고 있다. J4U공동체를 만나 인생이 달라졌다. J4U공동체 청년들의 대가없는 섬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복음통일의 주역을 양육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한 알렉산드라 목사
(온누리M미션 러시아어 예배)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은 면화(棉花)재배를 많이 하는 국가다. 독립국가연합 면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우즈벡은 세계 3위의 목화 생산국이자 세계 7위의 금 생산국으로 유명하다. 천연자원도 풍부한 나라다. 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구소련 시절 러시아를 의존했던 우즈벡이 경제독립을 하면서 모든 공장들이 멈췄다. 1991년 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고, 곧 이어 화폐도 바뀌었다. 국내 시장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해외 투

자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구소련 시대에는 없었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갈수록 심화됐고,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과 교수들은 형편없는 월급을 받게 됐다. 월급은 50~100\$ 정도로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우즈벡 국민들은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제난의 영향으로 엘리트들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

우즈벡 선교와 고려인

1991년 우즈벡으로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대부분의 한국인 선교사들은 우즈벡에 와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 고려인들이 한국어에 능통했다. 고려인들은 대부분 50~60대 중년층이었고, 북한말과 고려인이 쓰는 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구소련 사회체계가 무너진 것이 우즈벡에 한국인 사업가들과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영향으로 고려인들은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즈벡에서는 지금 한국어 바람이 불고 있다. 타쉬켄트 지역 2개의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생겼다. 한국어학원도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배우던 젊은이들과 나이든 고려인들이 선교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즈벡에서 복음은 고려인들에게 가장 먼저 퍼졌다. 우즈벡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민

우즈벡에 복음이
잘 전파되지 못하는 이유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밭에서 목화를 수확하고 있다.

족이 고려인이다. 한국인 선교사들은 주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우즈벡에서 교회 개척의 가장 큰 관건은 한국인 선교사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현지인에게 교회 지도력을 인계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교회 지도력 인계를 어려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수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정착 지향적인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현지인에게 교회를 인계 할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적인 소유개념과 성공 지향적 사역을 추구했다. 타문화를 수용하는데 정형

화된 노파심도 있었다.

우즈벡에서는 타종족 선교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하지만 많은 고려인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좋아한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인과 잘 어울렸지만, 우즈벡 사람들과는 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인들로부터 러시아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됐지만, 우즈벡 종족에게는 잘 전달되지 못했다.

많은 고려인들과 러시아 현지 목회자들이 우즈벡 선교에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즈벡 사람들에게 법으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땅이 변화되리라 확신한다.



목회칼럼 윤모세 전도사(Pole2공동체)

한 영혼을 위하여



요즘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자되는 농담이 있다. “할리우드 인기 배우 매트 데이먼을 구하기 위해 미국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는가?”다. 나는 이 글에서 얼마 전 매트 데이

먼이 주연을 맡은 영화 ‘마션(The Martian, 2015)’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영화는 주인공을 구하는 이야기다. 이 영화를 보면 매트 데이먼의 지난 영화들이 연상된다. 1944년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린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Ryan, 1998)’와 지난해 개봉해 큰 성공을 거둔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 2014)’가 떠오른다. 매트 데이먼은 이들 영화에서 열연을 펼쳤다. 이번에 개봉한 마션에서도 마찬가지다. 매트 데이먼은 명실상부한 ‘피구조자 전담배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성 탐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주인공 마크 와트니(매트 데이먼)가 홀로 남게 되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그는 식물학자 겸 우주비행사다. 화성에 남겨진 그가 살아남았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NASA와 미국 국민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NASA의 한 학자가 화성에서 온 구조 신호를 포착했다. 그 때부터 NASA는 마크 와트니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친다.

영화 ‘마션’과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캐스트 어웨이(Cast Away, 2000)’를 비교를 해보자. 캐스트 어웨이는 무인도에 표류한 택배 회사 직원을 구조하는 이야기고, 마션은 화성에 남겨진 식물학자 겸 우주비행사를 구조하는 이야기다.

두 영화의 차이점은 캐스트 어웨이는 표류자의 필사적인 삶과 노력을 표현했다면, 마션은 표류자의 모습과 구조자의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은 NASA 직원이 된 것처럼 손에 땀을 쥐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시하게 된다. 화성에 홀로 남겨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게 된다.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을 나오면서 나에게 질문을 했다.

“과연 나는 한 영혼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맛집을 발견하거나, 좋은 관광지에 가면 그곳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려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게 하면서 내가 경험한 복음이

최고의 것임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생각했다.

광활한 어둠 속 우주에서 캡틴이 마크 와트니의 손을 낚아채는 장면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을 구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쉘러 리스트(Schindler's List, 1993)’의 마지막 장면의 한 문구가 떠올랐다.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이 쉘러에게 반지를 건넨다. 반지에 찍혀있는 문구에는 한 영혼의 소중함이 담겨져 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마션’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었던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 손에 땀을 쥐는 간절함이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한다.

이슬람 선교학교 ‘WHY 무슬림?’ 개강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이슬람 선교학교가 개강한다. ‘WHY 무슬림?’을 주제로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1주차에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을 주제로 박경남 대표(한국 WEC), 2주차에는 ‘이슬람 팽창의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 과정’을 주제로 이현수 대표(한국 Frontiers), 3주차에는 ‘무슬림들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중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드보라(중동 사역자), 4주차에는 ‘유럽, 아시아, 한국의 이슬람’을 주제로 권지윤 부소장



(이슬람연구소), 5주차에는 ‘이슬람과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선교의 필요성’을 주제로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가 강의할 예정이다.

등록은 아이스쿨이나 현장등록을 하면 된다. 회비는 2만원.
문의: 김진경 총무
(010-5378-7140)

기고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이슬람 선교학교를 열면서

“이슬람은 뭐고, 무슬림은 뭐죠?”

“IS는 어떤 단체인가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던데 다 같은 이슬람 아닌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난민이 되는 건가요?”

요즘 세계는 이슬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중동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재스민 혁명은 중동을 치열한 내전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IS와 관련된 뉴스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갈 곳 없는 난민들이 야기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도 2015년 기준으로 25만 명 정도의 이슬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슬람의 문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해결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환영, 이유 없는 거부나 혐오,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해묵은 종파 갈등이 무엇인지, 이슬람은 서구 기독교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떤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과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는 어떤 복잡한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지 등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선교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종교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더라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 안방에 찾아온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2000선교본부는 국내 전문 강사진을 모시고 이슬람 선교학교를 개설하고자 한다. 이슬람에 대해 궁금했거나, 이슬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수강하면 좋을 것이다. 이슬람 선교학교 개설을 통해 온누리교회의 이슬람 선교가 균형 잡히고 심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 정기공연

지난달 3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단장 이국주)이 정기공연 ‘I am a Christian’을 했다. 정기공연 지휘는 신준환 성가사가 맡았다.

이날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은 가스펠, 찬송가, 가곡, 성가 등 다양한 합창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2002년 창단된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은 현재 33명이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집회, 조선족 교회 초청 연주, 만남의 잔치 등에서 공연하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정신건강 세미나

11월 7일과 14일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조현병(정신분열병) 극복하기’를 주제로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7일과 14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11월 4일까지 선착순 120명을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아이스쿨(www.ionnuri.org)에서 참가신청하

면 된다. 회비는 4만원이다.

11월 7일에는 장순우 정신과전문의가 조현병의 주요 이슈(1) & 비약물치료적 접근, 낙인의 극복과 가족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11월 14일에는 남윤영 정신과전문의가 조현병의 주요 이슈(2) & 약물 및 의학적 치료, 조현병 환자의 사회복귀와 적응 돕기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3008-1753

재정국 팀장 채용

온누리교회 재정국 팀장을 채용한다. 대상은 온누리교회에 등록한지 10년 이상 된 안수집사로 재정 관리와 회계업무 유경험자다. 신앙심이 깊은 성도를 모집하고 있다.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앙간증문 1부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장경식 장로(02-3215-3647)
(e-mail: changk58@onnuri.org)

두란노아버지학교 가족사랑 걷기대회

국내외 19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가 지난 달 24일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가족사랑 걷기대회는 국내외 19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려 의미가 있었다.

가족사랑 걷기대회에서는 가족과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드라마, 영화, CF, 다큐멘터리 등을 선정해 좋은 아버지를 시상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강석우와 방송인 노사연도 상을 받았다.

이날 김성복 장로는 “앞으로도 아버지의 역할을 세상에 알리는 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세워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1995년 10월 출범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두란노아버지학교에는 약 30만 명의 아버지들이 참가했다.

2004년부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미국, 중국 등 해외 교포를 위한 아버지학교도 개설했다. 현재 전 세계 61개국에 퍼져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현지어로 진행되는 아버지학교도 12개국에서 열리고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CGNTV와 반석미니스트리 MOU 체결식.

CGNTV·이집트 반석미니스트리 MOU 체결

중동과 북아프리카 미디어 선교 위한 교두보 마련

CGNTV가 지난 10월 1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영상·소셜미디어 제작사 ‘반석미니스트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미디어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연간 최소 2편 이상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고, 내년부터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유튜브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바이블리칼 시청자들을 위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인, 무슬림의 삶과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반석미니스트리는 CGNTV 콘텐츠 가운데 현지 실정에 맞는 것을 선별해서 SAT7, 킹덤셋(KINGDOMSAT), 미

라클(MIRACLE) 등 이슬람권 기독교 위성방송에서 정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올해 안에 ‘아랍의 봄’ 4주년을 맞아 CGNTV와 반석미니스트리가 튀지니에서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SAT7, 킹덤셋 등을 통해 상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석미니스트리 마이클 마하루스 대표는 “문화와 언어 등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국과 이집트 미디어 사역자들의 비전이 하나임을 확인했다”면서 “‘마케도니아의 환상’과 같은 우리의 요청에 CGNTV가 동역의 손길을 내밀어 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선교학교 10기 참가자 모집

이주민 선교학교 10기가 개강한다. 11월 14일부터 4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다.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과 국내 이주민 선교, 힌두권 이주민 선교, 국내 이주민 선교의 과거와 미래, 다문화가

정과 자녀 이야기, 이주민 제자훈련과 역파송, 불교권 이주민 선교, 온누리M센터 외국인예배 현장체험학습, 온누리M미션 비전과 사역 소개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회비 4만원. 문의: 010-3337-3327

제1072호 | 2015년 11월 1일(주일)

■이주민 선교학교 수료 간증



/ 홍에스터 자매

이주민을 사랑하고 품는 마음

1978년 인구 분산과 도시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후반, 침체되고 있던 안산은 이주노동자들의 공단 유입과 더불어 순식간에 그들의 주거지로 각광받으며 침체기에서 벗어났다. 안산 원곡동은 현재 외국인 주민 수가 내국인을 추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들이 안산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이주민 선교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안산M센터 방문과 이주민 마을 체험이었다. 이주민들을 만나 삶을 배웠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갔다. 파키스탄 음식과 스리랑카 음식도 맛보았다. 우리가 만난 이주민들은 고된 일터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이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마사지 서비스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터로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대략 117만여 명에 이른다. 이주자들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그들은 공장에 딸린 기숙사에 살거나 한국인들이 사는 동네에 섞여 살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 이태원도 외국인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직장 유치원에서 이라크 학부모들을 위한 상담교사를 뽑을 일이 있었다. 마침 동생의 반지리를 내가 채울 기회가 되었다. 나는 이라크를 테러국가로 잔인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이라크 학부모들은 대부분 외교관 출신이며, 의사로 종사하던 분들이었다. 그들은 교양 있는 말과 총명한 지식으로 우리를 대했다. 그들은 자녀에게 “고기 안돼!”라는 말을 한국어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라크 부모들은 유치원에서도 철저하게 무슬림 관습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라크인들은 가족 관계도 중요시했고, 먼 친척과의 결혼을 허용하기도 했다. 지난 주 이라크 학생의 한 어머니가 나를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그 어머니는 이라크에서 의사였고, 영어와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다. 내게 이라크 음식을 대접해주었다. 이라크의 문화,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줬다. 이라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를 돌아보게 했다.

이주민 선교학교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개인지도 봉사를 통해 관계의 문을 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며, 복음의 통로를 열어갈 것이다.

■창신동 쪽방촌을 다녀와서



/ 백현욱 형제(갈렘공동체)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따뜻하고

2013년 겨울,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창신동 쪽방촌을 처음 갔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날 갈렘공동체 청년들은 창신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도배와 청소를 해드렸다. 청년들과 함께 방문한 집들은 하나같이 비좁고, 열악했다.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창신동 쪽방촌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했다. 누추한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가족들은 있는지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 수많은 물음을 뒤로한 채 섬김에 최선을 다했다. 처음 해보는 도배지만 열심히 했다. 청소도 하고, 허드렛일도 도왔다.

그 날 이후 지금까지 매일 한 번씩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꼬박꼬박 방문하는데 의미를 뒀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매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다. 그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라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다. 항상 반겨주시던 어르신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처음에 가졌던 궁금증이 없어졌다. 내가 어떻게 이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도 위선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전에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환경을 보고 안쓰러웠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내세웠던 것이 부끄럽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내가 도움을 주면 그들은 받는 일방적인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찾아가면 어르신들은 늘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외로움 속에 계셨던 어르신들은 그게 아닌가보다. 그 모습이 눈에 선했다.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었다. 주말에 시간을 들여 창신동 쪽방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다. 가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항상 창신동 쪽방촌을 다녀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음도 따뜻했다.

그래서 이 사역을 2년째 지속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주고 싶어 창신동 어르신들을 대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르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공감해나가고 애쓰는 내 모습에 놀랄 때도 많다. 올 겨울에도 창신동 쪽방촌에 따뜻한 이불 같은 사랑을 전할 것이다.

■유아세례 간증



/ 아이: 민예지, 부: 민경환, 모: 강소정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부부는 2012년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다 아내가 수년간 이어진 친구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교회가 바로 내가 다니는 양재 온누리교회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다. 우리 부부는 매일 기도문을 읽었다. 그런데 내적인 신앙이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셨다.

9월 5일 아이와 만났다.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아이의 모든 모습이 예뻐졌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부담감이 생기기도 했다. 아이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생각하게 됐다.

마음 한편에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모실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보다는 아이를 돌보는데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한다. 이렇듯 아직도 매일같이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한다.

아이가 집을 어지르고, 울며 떼쓰는 모습마저도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싶다. 부모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부에게 아이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잘 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다. 이번 세례가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이가 자라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 아이가 커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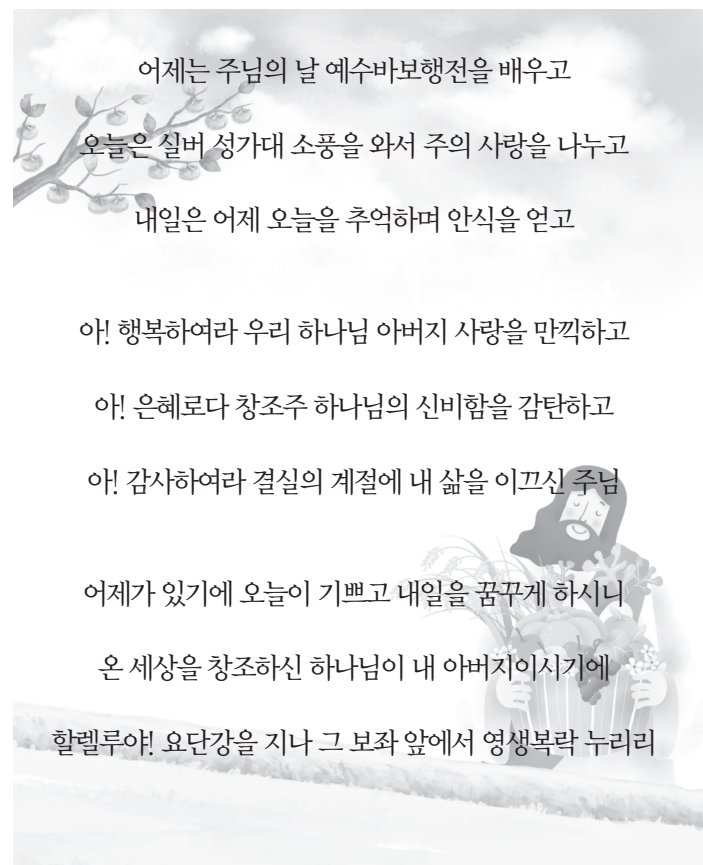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항상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믿음이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는 동역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신앙시

어제 오늘 내일

/ 석윤란 성도(실버성가대)





장로칼럼 하성기 장로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에서

장로합창단이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섬기고 돌아왔다. 우리는 러브소나타 집회 오프닝을 맡아 행사장을 찾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축복의 찬양을 선사했다. 또한 우리는 오이타 현지 교회도 방문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그 감동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열린 지난 29일, 장로합창단은 행사 출연 전 오이타 메구미 그리스도교회와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를 찾아가 그곳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했다. 특히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감동과 은혜의 눈물을 흘렸다.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에는 89세인 야마모토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셨다. 그 교회를 방문하기 전부터 나의 마음이 어려웠다. 장로합창단 총무로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열 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를 방문하고 야마모토 목사님을 만나 뵙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은 흔한 휴대폰도 안 가지고 계셨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6월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있었다. 게다가 교회 건물은 길으로 보기에 번듯해 보였는데 성도는 고작 두 명 밖에 없었다.

우리는 늘 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CGNTV 안테나 기증을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방문이 두 성도님과 목사님 내외분께 커다란 감동이 되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들

을 둘러싸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연신 감사하다고 했다. 여든 아홉 되셨고, 허리가 구부러진 노(老)목사님이 자신들의 교회에 외워서 감사하다며 우셨다. 교통사고를 당한 날, 자신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일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려고 살려주신 것 같다고 하셨다. 자신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 날까지 쉬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몸도 편치 않은 노(老)목사님이 어찌나 짙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던지 듣고 있던 우리들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갑작스레 헌금하기로 결정했지만 모두들 흔쾌히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엔화를 꺼냈다. 그 액수가 5만8천엔 가량 됐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봉투를 드리자 야마모토 목사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목사님을 보고 순간 나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또 울었다. 겨안고 축복했다. 일반적인 교회 방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감동을 체험했다. 봉사하러 간 우리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오는 시간이었다.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한 것도 은혜였지만,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에서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일본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권사칼럼 김경희 권사(여의도공동체)

내가 만난 주님이

이스라엘 성지로 여행을 갔을 때 일이다. 눈앞에 보이는 골고다 언덕을 구간으로 나눠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십자가를 등에 메었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생각났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 뭉클했다. 온 몸을 감싸고 있는 감정이 불쑥 올라왔다. 복받치는 울음을 머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갔다. 나는 그 순간 주님이 가신 길을 더욱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결단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일이다. 내 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숨겨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울었다. 주님은 매일 나를 눈물로 씻기며 다듬어가셨다. 날마다 맞이하는 아침에 비천한 하녀의 신분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맞이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 주님이 내 신분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감사의 찬양을 매일 올려드리게 되었다.

가정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나를 위로하셨다. 내 안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을 심어주셨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사의 자리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하다. 부족한 나를 권사 성가대로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고, 병상에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들에게 위로하심과 평안을 전하게 하신다. 또한 장애인들이 머무는 시설에 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

누며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신다. 주님의 크신 팔이 나를 인도하신다. 권사회에서는 임원으로 섬기게 하였고, <생명의 삶> 배움 나눔방에서는 길잡이로 나를 이끄셨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와 QT 나눔방을 통해 더욱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일으킨다.”

매일 아침 QT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나는 매일 아침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책의 글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삶에 깊이가 생겼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QT를 생활화하기 전후 삶이 확실히 다르다.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 내게 단호한 용기가 생겼다. 삶의 기준은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가정생활의 체계가 말씀으로 잡히기 시작했다. 주님은 QT를 통해 가정과 삶을 변화시키셨다.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성장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제는 믿지 않던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이뤄가도록 나를 이끄셨다. 나를 성장시키시고, 세워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이 정말 감사하다.



신앙에세이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야치요 온누리교회)

흔들리지 않고 신앙 지키기

야치요는 나리타 공항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다. 나는 오늘 일본에 있으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한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전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야치요는 동경 옆에 위치해 있다. 동경과 비교적 가까워 동경 도심에서 전차로 약 50분 정도면 도착한다. 자연환경도 사람 살기에 좋다. 수도권 베드타운의 성격을 지닌 곳이다. 이곳에는 배나무가 많다. 마을 여기저기에서 과수원을 볼 수 있다. 야치요는 전원마을이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지만 새로 이주해 온 젊은이들도 많다. 나리타 국제공항이 가까운 탓에 역 주변에는 외국인도 많다. 이렇듯 야치요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곳은 우상숭배의 모습을 쉽게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일본인들이 불교와 신도(일본의 자연숭배에서 비롯한 샤머니즘), 유교가 섞인 혼합종교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다. 야치요 근방만 하더라도 ‘나리타산신쇼지’라는 일본 최

대급 불교 사찰이 있다. 이곳에서 모시는 신이 동경까지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 얼마나 유명하면 나리타 공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트랜짓투어(경유 등을 목적으로 잠시 공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항 근교 여행 프로그램)에 이 절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일본의 절은 묘지도 같이 있어 유교적 조상숭배 모습도 지니고 있다. 절에서 장례를 치르고 조상을 모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꽤 많다. 야치요는 신도의 영향도 크다. ‘도키히라신사’라는 신사가 있는데, 도키히라 일족이 신사를 지키고 있다. 이곳은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신사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3일 동안 큰 마쓰리(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를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기도 한다.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교통이 마비된다는 이유로 이 축제 기간에 쉬기도 한다. 공공롭게 올해가 그 축제가 열리는 해다. 엇그제 교회 건물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축제에 참가하는 의미를 담은 줄을 만들어 교회 앞에 매달겠다는 것이었다. 딱 잘라 거절하면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나는 이것도 선교지에서의 영적전쟁의 하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교회의 사정을 겸손하게 말했다. 줄을 매다는 것은 교회가 우상숭배를 한다는 뜻이 되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줄을 매달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다. 건물주는 자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며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겠노라고 말했다. 교회를 도움으로써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줄을 매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교회를 이전해야하나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건물주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하나님께 안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갈지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예배를 방해한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길이 열린다.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람이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고, 겸손하지만 의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갈 때,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의 예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멈출 수 없는 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던 사람이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말이 문 제였습니다. 그들이 말만 바꾸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약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지적능력에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말씀을 근거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적인 영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됩니다.

무엇인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역사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잊어버리고,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실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나와 관련된 체험이어야 합니다. 셋째, 능력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가 있어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바보행전도 우리가 바보가 되자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나의 체험 속에서 증명되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

으심이 합해져야 가능합니다.

사도들에게는 복음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종이 되고,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셋째, 왜 그들의 증거가 멈출 수 없었습니까. 사도들은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헛웃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론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 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24~31절).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 다. 방해세력을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 습니 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세상의 헛된 왕들이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구나. 하나님 비웃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상황을 세상의 방식과 철학으로 해석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하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지금 대적자들의 행동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이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시편 2편에 메시아를 대적했던 이들의 헛된 음모구나. 저들은 우리를 압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뤄질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 상황이 해석되는 사람은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이깁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연약하게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다시 부활합니다.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힘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운동력입니다. 기관이나 종교화된 교회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계속해서 역사 속에 증거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간

언제나 기꺼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를 위한 바보〉

데이빗 케이프 저, 이상준 옮김 | 토
기장이 | 12,000원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차라리 땅을 갈라서 저를 삼키도록 하시고 이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던 데이빗 케이프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다. 14개월 동안 그 부르심을 확인해야 했다. 결국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길거리 세족 사역’에 순종하게 됐다. 3,000km 걸으면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깨어진 가정의 회복되고, 중독이 치유되며, 조직폭력배가 발을 씻겨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주님을 위한 바보라면 언제나 기꺼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데이빗 케이프 목사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있다. 꼭 한번 만나보자.



복음을 바르고, 깊고, 넓게 이해하는 방법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김세윤 저 | 두란노 | 13,000원

당신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정도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주일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술, 담배, 제사를 안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저자는 한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앞서 제시한 3가지 ‘하기’와 3가지 ‘안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바리새파적 경건주의를 경고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신학에 의해서 바르게 서고 깊어진다고 권면한다. 이 책은 각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가 올바른 신학으로 복음을 더 바르고, 깊고, 넓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